

불가사리를 기억해

유영소 동화 | 이영림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교과: 3, 4학년 국어 독서 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과 교육의 성취 기준: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분야: 한국 창작동화, 전래동화, 단편 동화, 옛이야기

활용: 교육 연극

주 제 어: #옛이야기 #전래동화

작성: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활동 목표

-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다양한 '흥내 내는 말'의 재미를 느끼고 어려운 낱말의 의미를 문맥을 살펴 짐작하며 읽을 수 있다.
- 등장인물에게 궁금한 것을 떠올려 질문하고 인상적인 장면을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책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책의 내용

전쟁에 나간 가족을 기다리던 아줌마가 바늘을 먹여 길러 낸 ‘불가사리’. 아줌마의 부탁으로 전쟁터에 달려간 불가사리는 쇠를 몽땅 먹어 치워 전쟁을 끝내 버린다. 전해지는 옛이야기들은 대개 거기서 끝난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뒤, 불가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산삼이 천년을 묵으면 어린아이가 되어 세상을 돌아다닌다는데, 그 아이를 만나면 누구나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불가사리를 기억해』에는 유명소 작가가 옛이야기 속에서 찾은 씨앗으로 새롭게 창작한 단편동화 두 편이 실려 있다. 작가는 ‘쇠를 먹는 괴물’, ‘착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역할에 머물러 있던 존재들에게 저마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불어넣는다. 어린이 독자들은 ‘익숙하다’고 여겨 온 옛이야기를 낯설게 바라보고, ‘선악이 정해져 있다’고만 생각했던 옛이야기 속 존재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이야기꾼인 유명소 작가가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또 다른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옛이야기에 녹아들어 있을까?

■ 교안 작성 의도

『불가사리를 기억해』에는 단편 동화 「불가사리를 기억해」와 「산삼이 천 년을 묵으면」이 들어 있다. 옛이야기를 씨앗으로 작가만의 상상력을 더해 신비롭고 흥미진진하게 펼쳐 냈다. 구어체로 쓰여 있어 입말을 살려 읽는다면 더욱 몰입해서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삽화는 이야기의 배경과 상황, 인물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인물의 표정과 몸짓을 실감나게 잘 표현했다. 두 이야기 모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교훈을 전달하는 대신 인물을 통해 바른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본 교안은 3학년용 대상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단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두 편의 단편 동화를 수업 시간에 함께 읽고 활동하는 12차시로 구성했다. 각각의 단편을 읽고 하는 활동, 두 편을 모두 읽고 할 수 있는 선택 활동을 담았다.

이 책은 구어체로 쓰여 있어 ‘소리 내어 함께 읽기’, 그중에서도 ‘역할을 정해 실감나게 읽기’를 해 본다면 내용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이 잘 드러나 있으므로, 그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통해 마음과 성격을 짐작해 보는 인물 탐구 활동이 어울린다. 등장인물에게 궁금한 것, 하고 싶은 말을 떠올려 그 인물을 초대하고(핫시팅), 그에게 편지를 쓰고,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와 인상 깊은 장면을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다양한 ‘흉내 내는 말’이 나온다. ‘흉내 내는 말을 빼고 읽기’와 ‘흉내 내는 말을 넣어 읽기’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흉내 내는 말’이 이야기 속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고, 글 읽는 재미를 더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흉내 내는 말을 알아 가고 익힐 수도 있다.

선택 활동으로 제시한 ‘인물 점토로 표현하기’, ‘국어사전 만들기’, ‘핫시팅’, ‘역할극’은 두 단편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이다.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 수준, 학급 상황에 맞게 활동을 선택, 수정하여 재구성하길 바란다.

학습 과정

	읽기 단계	활동 내용	총 12차시
책표지 차례	읽기 전	1. 책과 인사하기 1) 표지 살펴보기 2) 속표지와 차례 살펴보기	1차시
「불가사리를 기억해」	읽기 전	1. 예상 낱말 OX	
	읽는 중	1. 소리 내어 읽기 2. 내용 확인하기 3. 흥내 내는 말 찾기 4. 어려운 낱말 메모하며 읽기 5. 등장인물의 마음 변화 알아보기	2차시
	읽은 후	1. 내가 상상한 불가사리 표현하기 2. 국어사전 만들기 3. 불가사리를 찾아라!	4차시
「산삼이 천 년을 묵으면」	읽기 전	1. 조각 그림으로 내용 예상하기	2차시
	읽는 중	1. 소리 내어 읽기 2. 내용 확인하기	
	읽은 후	1. 내가 만약 2. 핫시팅,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3. 역할극	3차시
작가의 말 뒤표지	책을 끝까지 읽은 후	옛이야기 속으로 풍덩	선택 활동

읽기 전

■ 본문을 읽기에 앞서 책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책 표지, 책날개, 속표지, 차례를 살펴보고 등장인물을 예상하고 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1. 책과 인사하기

1) 표지 살펴보기

책 표지를 살펴봅시다. 보이는 것, 첫 느낌, 떠오르는 생각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답변】

사람들이 불가사리를 만지고 있어요.

불가사리가 꽃을 물고 있고, 주변에 꽃을 그려 뒀어요.

남자아이가 불가사리 머리 위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어요.

선생님께 책 표지를 보여 줄 때는 앞뒤 표지를 펼쳐 전체 그림을 보여 줍니다. 아이들은 표지 가득 그려진 불가사리를 볼 수 있습니다.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쇠를 먹는 불가사리>를 봤기 때문에 책 제목과 그림을 연결시켜 표지 속 동물이 불가사리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속표지와 차례 살펴보기

속표지에 무엇이 보입니까?

【예시 답변】

불가사리가 쇠를 먹고 있어요. 낮의 쇠 부분을 먹어요.

불가사리 뒤에 산삼과 산삼꽃이 보입니다. 꽃이 빨간 열매처럼 생겼어요.

차례를 살펴 봅시다. 이 책에는 「불가사리를 기억해」와 「산삼이 천 년을 묵으면」 두 개의 동화가 들어 있습니다.

읽는 중 활동 방법

1. 소리 내어 읽기

선생님과 한 줄/문단 번갈아 읽기로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짝끼리 한 줄/문단 번갈아 읽기로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역할을 정해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선생님께 다양한 읽기 방법이 있지만 3학년 아이들과 온작품읽기를 할 때는 주로 함께 소리 내어 읽는 방법으로 읽습니다. 교사와 학생 또는 짝과 함께 한 문장(문단)씩 번갈아 읽기를 합니다. 전체 학생이 소리 내어 함께 읽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학생마다 읽는 속도도 다르고 자칫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글의 도입 부분은 교사가 읽어 주는 것을 권합니다. 교사는 책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책 내용과 분위기에 맞게 안정되고 실감나는 목소리로 읽어 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쉽게 책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대화글이 많은 부분은 등장인물의 역할을 정한 뒤, 그 역할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읽어도 좋습니다.

2. 내용 확인하기

등장인물, 배경,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물의 마음과 기분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찾아봅시다.

선생님께 책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장인물과 배경, 사건 등에 관해 질문하며 읽습니다. 깊이 있게 글을 이해하도록 등장인물의 마음과 기분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찾아보고 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봐도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찾고 일어난 일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낱말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맥의 흐름으로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불가사리를 기억해」 #욕심 #전쟁 #약속 #환대-읽기 전 활동

1. 예상 낱말 OX

「불가사리를 기억해」를 읽기 전에 글에 나올 것 같은 낱말과 나올 것 같지 않은 낱말을 예상해 봅시다.

3×3 빙고 칸에 적힌 9개의 낱말 중 「불가사리를 기억해」에 나올 것 같지 않은 낱말을 골라 × 표시 해 봅시다.

사자	쇠불이	기와장이
밥풀	바다	대포알
고개	임금	별

【정답】

사자	쇠불이	기와장이
밥풀	바다	대포알
고개	임금	별

선생님께 예상 낱말 OX는 읽기 전 활동으로, 그 정답은 책을 다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상한 낱말이 맞는지 알기 위해 책을 끝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겠지요. 예상 낱말이 나온다면 기분이 좋고 나오지 않는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활동입니다.

읽는 중 활동

1. 소리 내어 읽기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선생님께 불가사리와 아줌마가 대화하는 장면 등은 역할을 정한 뒤 읽으면 실감 나게 글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을 함께 곁들인다면 더욱 재미있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2. 내용 확인하기

- 아줌마가 빚은 밥풀 덩어리 인형은 어떤 모양이 되었나요?
몸뚱이는 곰, 코는 코끼리, 눈은 코뿔소를 닮았고, 발은 호랑이 발 그대로인 모양
- 아줌마는 배가 고프니 쇠불이를 달라는 불가사리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바늘, 가위, 인두, 다리미
- 쇠불이를 먹은 불가사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점점 커졌어요. 먹은 게 살이 되고 뼈가 되어 튼튼해졌어요.
- 불가사리가 눈 똥은 어땀나요?
찰진 흙을 만들었어요. 쇠 기운이 들어 있어서 기와를 굽고 집을 짓기 좋아요.
- 아줌마는 맛난 쇠불이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 주었나요?
열두 고개를 넘으면 국경인데 거기에 쇠불이가 가득하다고 알려 주었어요.
- 열두 고개를 넘으며 불가사리는 어떻게 변했나요?
고개마다 쇠불이를 먹고, 삼살개보다 더 커지고, 호랑이보다 훨씬 커지고 이무기보다 커졌어요.
- 열두 고개를 넘어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요?
전쟁터예요. 사람들이 무기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 불가사리의 크기 변화 과정을 이야기해 봅시다.
손가락만 한 밥풀 덩어리 인형 → 주먹 크기 새끼 돼지 → 삼살개보다 더 커짐 → 호랑이보다 훨씬 커짐 → 이무기보다 커짐
- 불가사리가 무기를 전부 먹어 치우자 어떻게 되었나요?
전쟁이 끝났어요.
- 전쟁이 끝나자 아줌마와 불가사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줌마의 남편이 돌아왔고 차돌이라는 아이도 생겼어요. 불가사리는 동굴 감옥에 갇혔어요.
아줌마는 불가사리를 잊었고, 불가사리는 아줌마를 잊지 않았어요.
- 동굴 감옥에 갇혀 쇠불이 조각만 먹는 불가사리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무섭고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아줌마를 그리워했어요. 외로웠어요.
- 동굴 감옥에서 지쳐 가다 점점 화가 난 불가사리를 구슬려 보려고 임금은 어떤 계획을 말했나요?
이웃 나라를 쳐서 더 부자가 되고, 이웃 나라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고 했어요.
- 임금은 어떤 성격인 것 같나요?
욕심이 많아요. 이기적이에요.
- 불가사리가 궁궐에서 난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은 여태 힘들여 모은 엽전을 빼앗길까 걱정되어 쇠불이와 엽전을 숨겼어요.
- 불가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숨어 살며 사람들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쇠불이를 먹지 않아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결국엔 사라질 것 같아요.

3. 이 단편에서 흉내 내는 말을 찾아봅시다.

【예시 답변】

(11쪽)꾸역꾸역 (12쪽)요리조리, 몽글몽글, 두덕두덕 (13쪽)오물오물 (14쪽)끔빽끔빽 (15쪽)후후 (17쪽)훅
 훅 (19쪽)몽텅몽텅, 헤헤, 뿌직뿌직 (23쪽)따끈따근, 딱딱, 우둑우둑, 쪽쪽 (26쪽)질질

선생님께 이 책에는 흉내 내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흉내 내는 말을 빼고 읽어 보면 흉내 내는 말을 넣어 읽을 때의 좋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흉내 내는 말을 넣어 읽을 때 더욱 실감나고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찾은 말을 몸짓으로 표현해 보기, 친구가 표현한 흉내 내는 말을 알아맞히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어려운 낱말 메모하며 읽기

【예시 답변】

쪽	낱말	쪽	낱말	쪽	낱말
8	삐바느질	13	살갑다	18	쇠스랑
8	총총하다	14	말간	23	분질러
10	나비잠	15	바늘쌈	41	싸리울
8, 11	땀	15	속말	45	다랑귀
11	욱여넣다	17	그득그득하다
1	물리다	17	단박에		

선생님께 처음 보는 낱말이라도 앞뒤 문맥을 통해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낱말을 표시하거나 메모하며 읽으면 ‘국어사전 만들기’ 활동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5. 등장인물의 마음 변화 알아보기

불가사리의 마음이 직접 드러나는 표현, 행동과 말을 찾아봅시다.

표정과 몸짓, 말로 표현해 봅시다.

불가사리의 마음을 짐작해 보며 마음의 변화를 느껴 봅시다.

【예시 답변】

쪽	인물이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 또는 행동이나 말	불가사리의 마음 짐작하기
26	얼굴이 붉어진 불가사리 혼자만 씩 웃었지.	쇠불이를 잔뜩 먹어서 기분이 좋음, 만족스러움, 행복함
29	불가사리는 무섭고 속상하고 억울했어. 영영 울어도 보고 소리도 질렀지만, 하나 소용없었지.	외로움
32	불가사리는 점점 지쳐 가다 점점 화가 났어	실망, 화남
37	불가사리는 기가 막혔어. 하도 기가 막혀서 입이 점점 벌어졌지. 무어,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꼭 쥘 주먹이랑 꼭 감은 눈에서 화르르 불이 붙는 것 같았어. 불가사리 몸이 부르르 떨려 왔어.	엄청 화가 남
48	“아줌마! 나는 참말로 아줌마가 보고 싶었어요.”	서러움, 슬픔

읽은 후 활동

1. 내가 상상한 불가사리 표현하기

불가사리의 생김새를 표현한 부분을 찾아봅시다.

(12쪽) 몸뚱이는 곱, 코는 코끼리, 눈은 코뿔소를 닮았고, 발은 호랑이 발 그대로네.

(51쪽) 몸뚱이는 곱, 코는 코끼리, 눈은 코뿔소를 닮고 발은 호랑이 발 그대로인 불가사리를 그렸지

불가사리의 생김새를 떠올리며 불가사리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해 봅시다.

불가사리의 생김새를 떠올리며 내가 상상한 불가사리를 점토로 표현해 봅시다.

【예시 자료】



점토로 불가사리 표현하기

쇠불이를 먹고 점점 자라는 불가사리를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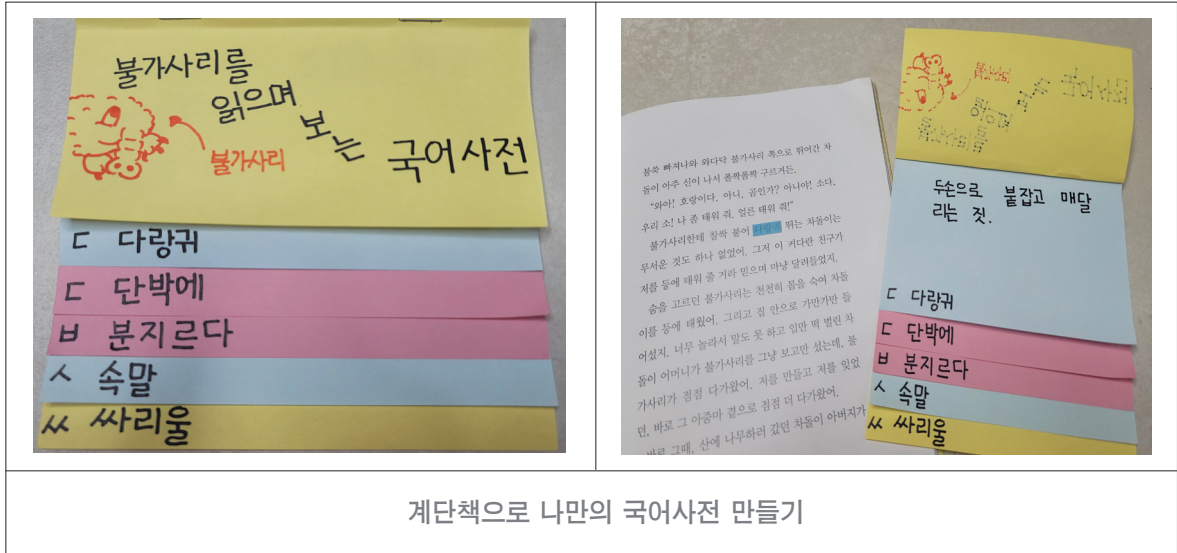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던진 창, 칼, 대포 공격을 받는 불가사리를 표현

선생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불가사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입체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국어사전 만들기

책을 읽으며 어려운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봅시다.
알게 된 낱말을 넣어 나만의 국어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예시 자료】



선생님께 이 활동은 국어사전 찾는 방법을 익힌 뒤 해야 효과적입니다. 3학년 1학기에 국어사전 활용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국어사전의 구성과 순서,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배운 뒤 글 속에서 발견한 어려운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직접 찾는 순서로 나아갑니다.

3. 불가사리를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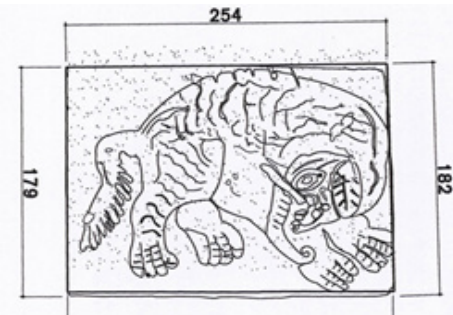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불가사리의 흔적을 찾아 더 알아봅시다.

(52쪽)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에 가면 교태전 꽃담을 지나 아미산 굴뚝에 줌 들러 봐. 그 예쁜 굴뚝, 바로 거기서 그 옛날 차돌이를 등에 태웠던 불가사리를 줌 찾아보라니까!



경복궁 아미산 굴뚝 [출처] 문화재청

경복궁 아미산 굴뚝은 왕비의 생활공간인 교태전 온돌방 밑을 통과하여 연기가 나가는 굴뚝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고종 4년(1867)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새로 만든 것이다. 현재 4개의 굴뚝이 있는데 6각형으로 된 굴뚝 벽에는 덩굴무늬, 학, 박쥐, 봉황, 소나무, 매화, 국화, 불로초, 바위, 새, 사슴 따위의 무늬를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각 무늬는 벽돌을 구워 배열하고 그 사이에는 회를 발라 면을 구성하였다. 십장생, 사군자와 장수, 부귀를 상징하는 무늬, 화마와 악귀를 막는 상서로운 짐승들이 표현되어 있다. 굴뚝의 위쪽 부분은 목조건물의 형태를 모방하였고 그 위로 연기가 빠지는 작은 창을 설치하였다. 굴뚝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각종 문양 형태와 그 구성이 매우 아름다워 궁궐 후원 장식 조형물로서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경복궁 아미산 굴뚝 부조 도면 [출처] 문화재청



자경전 담장 굴뚝에 새겨진 불가사리 부조



민화 백수도 8쪽 병풍 부분
조선시대 | 개인 소장
[출처] 『신화 속 상상동물 열전』, 한국문화재단



책거리 8쪽 병풍 부분
[출처]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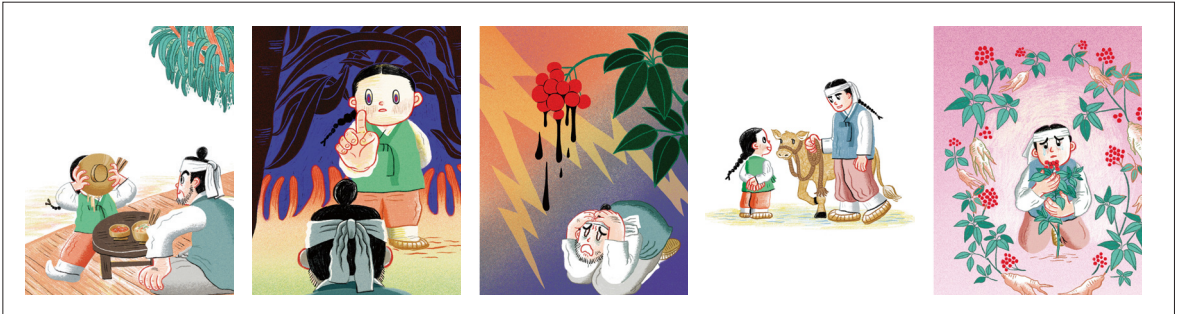
- 불가사리 외에 알고 있는 상상의 동물은 무엇이 있나요?
해치, 용, 이무기, 유니콘
- 사람들은 왜 동물을 상상했을까요?
괴물에 대한 호기심

더 알아보고 싶은 상상의 동물을 조사해 봅시다.

「산삼이 천 년을 묵으면」 #효도 #욕심- 읽기 전 활동

1. 조각 그림으로 내용 예상하기

「산삼이 천 년을 묵으면」 속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예상해 봅시다.



- 누가 등장할까요?
남자아이, 아버지, 젊은 남자
- 그림을 보여 궁금한 점을 적어 봅시다.
아이와 아버지는 아들과 아빠일까?
세 남자는 어떤 관계일까?
아버씨가 큰 잘못을 지어 벌을 받는 내용일까?
붉은색 포도송이처럼 생긴 것은 산삼의 꽃일까? 열매일까?
산삼을 안고 있는 젊은 남자는 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을까?
- 제목과 그림을 보며 어떤 이야기일지 예상해 봅시다.
천 년 된 산삼을 차지하려고 욕심 낸 아버씨는 벌을 받고 착한 총각은 산삼을 많이 찾는 이야기 같아요.

선생님께 책을 읽기 전 삽화의 일부를 보여 주고 어떤 내용인지 예상해 보며 이야기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1. 소리 내어 읽기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 산삼을 찾은 심마니들은 뭐라고 외쳤나요?
“심봤다!”
- 메산이는 누구인가요?
산삼이 천 년을 묵어 어린애로 변해서 돌아다니는데 그 꼬마 이름이에요.
- 농부는 메산이를 어떻게 알아봤나요?
엄마 없이 혼자 걸어가고, 얼굴도 어느 꼬마들하고는 좀 다르게 검은 데다 썩새래한 산삼 냄새가 났어요.
- 장터에서 메산이는 어떤 가게(상인)들을 구경했나요?
싸전(쌀장수), 어물전, 독장수, 짚신장수, 방울장수, 엇장수, 국숫집
- 농부는 어떤 거짓말로 메산이를 속였나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산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 메산이는 농부에게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 주며 어떤 약속을 받았나요?
산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빼고 다른 것으로 한 뿌리만 가져가기로 했어요.
- 가장 큰 산삼을 파내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천둥소리가 나고 마른번개가 쳤어요. 희미하게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 울음소리는 어디서 난 걸까요?
메산이가 울어요. 산삼 붉은 열매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어떻게 되었나요?
얇아 누웠어요. 점점 약이 들어 갔어요. 좋다는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 농부의 아들은 왜 산삼을 못 캐나요?
메산이처럼 될 수도 있는 산삼을 캐 가는 게 아이를 죽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마 못 캐어요.
- 메산이가 농부의 아들에게 준 씨앗을 길렀더니 무엇이 되었나요?
인삼이 되었어요.
- 농부는 어떻게 되었나요?
인삼을 먹고 병이 싹 나았어요. 게으름 피우고, 욕심 부리던 나쁜 버릇도 없었어요.
- 책 속의 흥내 내는 말을 찾아봅시다.
씩씩, 찌렁찌렁, 쫄쫄, 요리조리, 두글두글, 왁자그르르, 아장바장, 획, 발랑발랑, 왁시글덕시글, 빨빨 등

2.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 성격을 짐작해 봅시다.

【예시 자료】

	행동, 말, 생각	짐작되는 성격
아빠	-논일이랑 밭일은 팽개치고 쓸데없는 생각에 하루를 다 쓴다. -‘어떻게 일 좀 안 하고 편히 살 수 없나?’ -농부는 힘든 건 딱 질색이었거든. 요리조리 잔머리만 굴리면 쉬운 길이 뻔히 보이는데, 뭐 하러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	게으르다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산삼이 필요하다고 메산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	거짓말을 잘한다
	가장 큰 산삼을 캐내려는 모습	욕심이 많다
메산이	장날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별별 구경을 다 하는 모습	호기심이 많다
	(68쪽) 메산이는 곧이곧대로 다 믿거든. 구슬픈 목소리로 전하는 농부의 형편을 순진한 메산이 똑 믿을밖에! 거짓말도 모르고 속이는 것도 모르고, 주면서 값으라 앓고, 받으며 근심도 앓거든.	사람을 잘 믿는다, 순진하다, 착하다
농부의 아들	메산이가 먹은 국숫값을 내어 주는 모습 인삼 씨앗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	인정이 많다
	메산이가 될 수도 있는 산삼을 차마 캐지 못하는 모습	착하다

읽은 후 활동

1. 내가 만약

1) 만약 여러분이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상상해 봅시다.

- 만약 메산이가 내게 “혹시 산삼 갖고 싶어요?”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고마워.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

응. 네가 산삼을 준다면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잘 쓸게.

고맙지만 괜찮아. 나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낫겠어.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다른 산삼도 천 년을 키워서 메산이가 되면, 그땐 친구들이랑 같이 장터에 놀러 다녀.

- 만약 내가 농부의 아들 또는 딸이라면 메산이가 알려 준 산삼밭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메산이와 약속한 대로 가장 큰 산삼 말고 다른 산삼 한 뿌리만 캐서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아버지 병을 낫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메산이에게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산삼을 캐는 건 다른 메산이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요. 산삼을 캐지 않고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다른 약초나 씨앗이 없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메산이가 인삼 씨앗을 주지 않을까요?

2. 핫시팅

등장인물에게 궁금한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을 떠올려 봅시다. 그 인물을 초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전해 봅시다.

【예시 자료】

	질문하기	하고 싶은 말
농부	-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욕심을 부렸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나요?	- 잘못을 뉘우치고 나쁜 습관을 없애서 다행이에요. -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셨네요.
메산이	- 왜 국수를 좋아합니까? - 농부와 농부의 아들 말고 또 산삼 밭에 데려간 사람이 있나요?	- 국수를 좋아하니까 국숫집에서 일하고 국수를 실컷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농부의 아들	- 메산이를 직접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 착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본받고 싶어요.

선생님께 핫시팅 후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활동으로 이어 나가도 좋습니다. 등장인물에게 궁금한 것이나 하고 싶은 말 떠올리기 → 등장인물을 초대해 인터뷰하기(핫시팅) →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3. 역할극

작과 함께 표현하고 싶은 장면을 선택해 역할극을 해 봅시다.

【예시 자료】

때	옛날		
장소	장터, 국숫집		
장면	농부와 메산이가 장터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역할	메산이		농부
대본			
농부	애! 꼬마야. 배가 고프는 모양이구나. 국수 한 그릇 사 줄까?		
메산이	(고개를 끄덕인다)		
농부	여기 국수 두 그릇만 말아 주세요.		
메산이	(아주 맛있게 국수를 다 먹는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농부	고맙긴 뭐가 고마워. 자, 가자! 이 아저씨가 너를 집에 데려다주마. (농부와 메산이가 함께 웃으며 걷는다.)		
메산이	아저씨! 혹시 산삼 갖고 싶어요?		
농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사실은 내가 너한테서 산삼을 좀 얻어 가려고 기다렸단다. 우리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거든.		
메산이	(고개를 끄덕인다.) (농부와 메산이가 걷는다. 농부는 헉헉 거리며 힘들게 걷는다.)		

【참고 자료】

산삼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봅시다.

	
<p>〔출처〕 네이버 지식백과_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p>	

읽은 후

【선택 활동】 옛이야기 속으로 풍덩

옛이야기, 전래동화를 찾아 읽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선생님께 이 활동은 선택 활동(선택 활동)으로 학급 상황에 따라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함께 학교도서관에 들러 옛이야기 그림책을 찾아 읽고 자신이 읽은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이 옛이야기 그림책을 읽어 줄 수도 있겠지요. 다양한 옛이야기를 만나고 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옛이야기 그림책_사계절출판사

